

낚시하는
소녀

여자아이가 침대를 닫고 이층 창밖으로 뉘싯대를 드리우고 있다. 푸른 오동나무가 창을 가득 메웠다. 붉은 플라스틱 컵이 창턱에 놓여 있다. 비 끝에 난 햇살이 뉘싯대에 날 서게 앉아 휘었다.

뉘싯대 끝은 오동나무 속으로 숨어들어 있다. 여자아이는 뉘싯대에서 시선을 흘뜨리지 않는다. 오랫동안 뉘아내지 못한 뉘시꾼처럼 입술은 삐죽하고 눈은 간잔지런하다.

이층으로 난 철계계단을 밟는 발소리가 들린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뺀다. 세탁소 사내가 양손에 세탁물을 들고 계단을 오른다. 가오리 아가미를 꿰고 오는 어부 같다. 아이는 창밖으로 몸을 더 밀어낸다. 창턱에 올려둔 컵을 건드리고 만다. 컵이 창 너머로 떨어진 다. 시멘트 마당에 우유가 흐른다.

이내 새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는 미동도 않는다. 마당에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나타나 엮질러진 우유를 활짝활짝 핥는다. 아이는 비긋이 웃는다.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집 안 어디에선가 잠기 가득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온다.
“세진아!”

아이는 뉘싯대를 창턱에 가만히 올려놓고 침대에서 내려온다. 눈이 먼다. 미간을 찡그리며 눈을 감는다. 아이는 오른팔을 뻗어서 벽을 쓸듯이 하고는 달려간다.

식탁에는 붉은 핸드백이 놓여 있다. 아이는 핸드백을 열어 만원짜리 지폐를 꺼낸다. 현관문을 열 때 녹슨 경첩에서 마찰음이 날카롭다. 후덥지근한 공기에서 물비린내가 풍긴다. 세탁소 사내가 비닐에 싼 원피스 두벌을 건네고 아이는 돈을 셈한다. 사내의 얼굴이 검은 구멍처럼 보인다. 아이는 세탁물을 한껏 치켜들고 거실을 가로지른다. 닫힌 안방 문고리에 세탁물을 걸어놓는다.

세탁소 사내가 사라진 마당으로 여자아이가 나온다. 그새 새끼 고양이들이 사라지고 없다. 담과 건물 사이의 좁은 틈 어딘가에 네 마리 새끼고양이가 산다. 그 축축하고 어두운 곳이 궁금하다. 마법사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 아이는 도둑고양이들의 집을 영영 구경하지 못할 것이다. 여자아이는 시무룩해져서 붉은 컵을 집어 든다. 냅킨만 한 초여름 별들이 울울한 오동잎 사이로 내려앉는다.

식탁에는 어머니와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스티커사진들이 유리에 눌러 있다. 모녀는 동화 속 캐릭터처럼 노란 가발을 썼다. 탁자에

구석에 놓인 나무그릇에는 약봉지 서너개가 쌓여 있고, 소염진통제 파스도 보인다. 공과금고지서도 수북하다.

아이는 식탁 의자 하나를 현관으로 끌어간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연다. 조미료들이 늘어서 있다. 아이는 올리브유병을 꺼내든다.

아이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슬리퍼로 고정한다. 벤자민고무나무 그림자가 거실 깊숙이 넘어진다. 열린 문으로 벤자민고무나무 화분 하나가, 그 배후로 녹음 짙은 오동나무 풍경이 펼쳐진다. 아이는 의자를 딛고 올라선다. 까치발로 서서 현관문 경첩에 올리브유를 붓는다. 의자에서 내려와서는 하단부의 경첩에도 기름을 두른다. 아이는 문을 닫아본다. 소리가 여전하다. 문을 몇차례 더 여닫는다. 문소리가 차츰 잡힌다.

“어디 가니?”

안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난다. 목소리는 이내 깊은 기침을 토해낸다. 기침소리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아이는 풀죽어 대답한다.

“아니.”

안방에 들릴까 싶게 자그맣다. 안방이 잠잠하다. 집 안은 다시 적요에 휩싸인다. 햇빛은 부유하는 먼지마저 새겨낸다. 아이는 현관을 나서서 계단 끝에 선다. 벤자민고무나무 화분은 이삿짐을 들어놓다가 깜박 잊어 밖에 둔 물건처럼 보인다. 나무는 도톰한 밑동 줄기가 아랫도리처럼 배배 꼬였다. 오줌 마려워 다리를 꼰 모습이 연상된다. 사타구니에 담배재가 묻어서 거뭇거뭇하다. 아이는 쪼

그려 앉는다. 화분 뒤편으로 손을 넣어 낡은 어린이용 칫솔을 꺼낸다. 칫솔로 담배재를 털어낸다.

아이는 쫓긋하여 몸을 세운다. 오동나무에서 때까지 한마리가 총총거리고 나와서 두리번거리다가 날아간다. 비탈진 동네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마치 누진 센베이가 쌓여 있는 것 같다. 전신주와 가로등과 현수막이 얹힌 비탈길에 주차된 차들은 구를 듯 위태롭다. 새는 비탈을 거슬러 올라간다. ‘뉴타운 예정지 선정 환영’ 현수막들이 눈에 띈다. ‘우암본동 주민 여러분 뉴타운 결정을 축하합니다’ ‘누구 좋은 뉴타운이냐!’ ‘뉴타운 생때 쓰는 구청은 자폭하라!’ 비탈길 끝에 숲이 얼핏 보인다. 근린공원과 약수터가 있는 숲이다.

아이는 새가 날아간 부신 하늘을 바라보다가 뭔가를 깜박한 듯 현관으로 뛰어든다. 집 안 공기가 술렁인다. 제 방 침대로 뛰어오른 아이는 뉘싯대를 조심스레 끌어당긴다.

오동나무 우듬지에서 뉘싯대 끝이 나온다. 엠피쓰리가 끝에 묶여 낭창거린다. 아이는 엠피쓰리를 뉘싯대에서 풀어내고 헤드셋 잭에 연결한다. 기대감 가득한 표정으로 아이는 미색 헤드셋을 머리에 올린다. 커다란 귀마개를 착용한 것 같다.

긏, 긏, 키퍼, 키퍼, 키퍼, 키퍼, 키퍼……

새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는 나무로 눈길을 돌린다. 오동나무 속을 꿰뚫듯 바라본다. 새끼 새는 모두 세마리 같다. 새끼 새들이 가장 소란스러울 때는 어미 새가 나타날 때다. 그

러나 어미 새는 모를 것이다. 키, 키, 키… 어미 새가 없을 때도 새끼 새들이 곧잘 논다.

“야, 미친년아! 너 어디야?”

새소리를 밀어내고 날선 여자 목소리가 끼어든다. 깜짝 놀라 아이는 헤드셋을 귀에서 떼낸다. 옴피쓰리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맞다. 옆집 고등학생 언니의 목소리이다. 옆집은 여관이고 낚싯대는 가끔 옥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언니의 목소리를 낚아온다, 그 언니가 분홍색 낚은 추리닝을 입고 터덜터덜 약수터를 다녀오는 모습을 아이는 몇번 보았다.

“나는 수술비 구해보려고 별짓을 다하는데 넌 참 태평하구나. 줄라…… 왜 별안간 질질 짜고 지랄이야. 그 새끼는 왜 찾아가? 그니까 왜 그딴 놈한테 가랑이를 벌리느냐고…… 기다려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 화내서 미안해. 병원은 알아봤어?”

“줄라……”

아이는 중얼거리놓고 킁킁 웃는다.

거실 벽시계가 오후 세시 사십분을 가리키고 있다. 아이는 재킷을 걸치고 피아노학원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선다. 계단 중간쯤 내려와 아이는 오동나무를 한참 들여다본다. 오동나무 아래 마당에는 희고 검은 물감 같은 새똥이 점점이 떨어져 있다.

*

아이가 사라진 거실로 몸이 비대한 여자가 나온다. 얼굴이 부스스하다. 여자는 문고리에 걸린 원피스를 거두어서 안방 침대에 올려놓는다. 여자는 거실을 가로질러 아이 방을 들여다본다. 창턱에 낚싯대가 걸쳐 있다.

그녀는 식탁에서 약봉지를 뒤적여 봉지마다 약을 꺼낸다. 액상 위산제를 먼저 먹고, 가루약을 털어 물을 넘긴다. 마지막으로 조그맣고 흰 약통에서 알약을 꺼내 다시 물과 함께 삼킨다. 숨소리가 거칠다. 공과금고지서 위에 아이가 학교에서 갖다 놓은 가정통신문이 눈에 띈다. 롯데월드로 봄 소풍을 간다는 안내장이다. 삼만원이나 하는 소풍 값을 보고는 한숨을 흘린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냉동피자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덥힌다. 그사이 아이가 남긴 스낵을 입에 털어넣는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씻는다. 밤새 눈 밑이 더 거무스레해진 것 같다. 양치를 할 때는 구역질이 올라온다. 구역질은 그치지 않는다. 눈물이 맺힌다. 그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뒷물을 한다. 배와 가슴이 눌러서 얼굴이 붉어진다.

여자는 거실 창가에 앉는다. 젖은 머리에서 물이 듣는다. 여자는 발톱에 검은 매니큐어를 바른다. 별이 발등에 오른다. 그녀는 발을 말리는 기분으로 가만히 들여다본다. 짐승의 눈알들이 박힌 것 같다. 살지고 거친 발은 동물의 사체처럼 낯설고 이물스럽다. 새끼발가락의 발톱은 바깥이 돌리고 닳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여자는 비로소 자신이 아주 오래 산 느낌이 든다.

*

모텔 상그릴라. 모텔이란 말이 무색하게 넓고 추레한 여관이다.
한때 큰 제과공장이 있을 때는 일대가 꽤 번화했다지만 공장이 떠나고 구도심 변두리가 된 지금에는 그 시절이 짐작도 되지 않는다.

카운터 방에 주인여자와 고등학생 딸이 앉아 있다. 주인여자는 산더미 같은 수건을 개고 딸은 상을 펴놓고 문제집을 푼다.

“방 많이 놔두고 왜 독서실을 얻어 나가겠다는 거야?”

“면학 분위기가 돼?”

안경을 벗으며 딸은 되통스럽게 쏘아붙인다.

“새삼스럽게……”

그러나 어머니는 딸의 눈치를 살핀다.

“달방 광고 내는 거 좀 몇장 더 뽑아다줘. 장마에 다 못쓰게 됐지 뭐니. 독서실 끓는 데 얼마라고? 뭐가 그렇게 비싸대니? 우리도 이참에 깨끗이 고시원으로 바꿀까?…… 예고, 그도 목돈이 있어야지.”

휴대폰 알림음이 울린다. 딸은 전화기를 들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간다.

“어디 가지 마. 엄마 머리하러 가야 해.”

딸은 슬리퍼를 신고 계단을 오른다.

여관은 삼층 건물이다. 딸은 옥상에 오른다. 이웃집 마당에서 자

라는 오동나무가 우듬지를 옥상에 펼쳐놓고 있다. 여학생은 휴대폰 단축키를 누른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는 대뜸 소리친다.

“야, 미친년아! 너 어디야?”

*

“오늘은 일찍 자야 해.”

여자는 침대 끝에 앉아서 말한다. 아이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다. 둥글고 자줏빛 나는 불꽃 같은 나무에 큼지막한 새집이 있고, 새끼 새 세마리가 노란 부리를 한껏 벌린 그림이다. 아이는 그림을 대충 마무리하고 하단에 ‘노래나무’라 적어 넣는다. 침대 옆 벽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몇장 걸려 있다. 여자, 고양이, 새를 그린 그림들이다. 여자는 아이가 그림을 정리하는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

“오늘은 일찍 자야 돼.”

그제야 아이가 불만스럽게 고개를 든다.

“벌써?”

“열시야. 오늘은 조금 일찍 나가 봐야 하거든.”

아이가 스케치북을 덮는다. 여자는 크레파스 정리를 도와준다. 여자는 미안스럽다는 듯 딸을 꼭 끌어안는다. 서로 으스스하게 끌어안아서 포옹은 장난스럽다.

“참, 엄마!”

아이가 숨 막힌 듯 밀어낸다.

“우리 집 가훈이 뭐야?”

“가훈(家訓)?”

“우리 학교 교문에 써진 말 있잖아. 그것처럼 집집마다 그런 말이 있대. 우리 건 뭐야?”

“숙제니? 그런 거 없는데…… 교문에 뭐라고 써어 있었지?”

“어…….”

아이가 또박또박 글씨를 짚듯이 허공에다가 검지를 댄다.

“글,로,벌,인,재,를,육,성,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따라 아이는 몸을 오른쪽으로 반바퀴나 돌린다. 여자는 아이 몸을 바로 돌려놓는다.

“우리 집도 그걸로 할까?”

아이가 머리를 흔든다.

“에이, 안돼. 그건 학교 거고.”

“언제까지 해오래?”

“내일.”

“엄마가 일하면서 생각해 올게. 너도 생각해봐. 어서 자.”

아이는 이불 속으로 든다. 여자는 전등을 끄고, 어두운 거실로 나온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 가스밸브를 잠그고, 거실 창문이 닫혔는지 확인한다. 그녀는 신발장 위에 놓은 열쇠꾸러미를 챙겨 들고 한동안 어둠 속에 잠긴 거실을 둘러본다. 늘

뭔가를 빠뜨린 느낌이 든다.

문득 생각난 듯 여자는 오른쪽 어깨로 손을 넘긴다.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원피스를 들추고 파스를 떼어낸다. 핸드백에서 향수를 꺼내 어깨에 뿌린다. 그런데도 파스 냄새가 가시지 않은 것 같다. 그녀는 어깨에 코를 드밀고 쿵쿵거린다.

새시문을 조심스레 민다. 고개를 가웃한다. 여자는 문을 한번 더 여닫아본다. 역시 문소리가 작다. 장마로 축축해져서 그런가. 여자는 암전된 무대를 떠나는 배우처럼 숨죽여 현관을 나선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집 안으로 울린다.

문소리는 지난해 이사했을 때부터 났다. 짐정리를 하면서 식용유를 돌렸는데 그때만 잠시뿐 소음은 잡히지 않았다. 겨울 나고는 문소리가 부쩍 심해졌다. 집에 하자가 있는 걸 무시하고 세를 얻은 것처럼 드나들 때마다 마음에 걸렸다.

여자가 집을 나서자 아이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창문을 살짝 밀고 밖을 내다본다. 엄마는 여느 날처럼 계단 끝에서 담배를 물고 있다. 담 너머 골목에 선 가로등도 마당을 넘본다. 담배연기는 가로등 불빛 농밀한 밤하늘로 풀리며 흩어진다. 엄마는 출정하는 군인처럼 천천히 깊게 담배연기를 마신다. 스스로 풍선처럼 뽕뽕해져서 하늘로 날아갈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대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까 아이는 조바심이 난다.

오동나무 그림자가 계단을 배회한다. 여자는 담배를 컷전에 올리고 오도카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본다. 그녀는 벤자민고무나무